

팔도강산

2021. 7. 16. (금)

15:00~17:00

전국 각지 청년 백수들의 먹고, 사는 이야기

니트생활자 × Parti

● 공론장 개요

일시 : 2021년 7월 16일(금) 15시~17시

장소 : ZOOM

주최/주관 : 사단법인 니트생활자 X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후원 : OSF

사회 : 사단법인 니트생활자 다지

● 발제내용

발제1. “여러분, 잘 먹고 계신가요?”

지역별 청년 혹은 청년니트의 식생활 모습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11배달? 직접 요리? 야식? 혼밥? 부모님? 한끼에 쓸 수 있는 비용?)

발제2.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지내나요?”

지역별 청년 혹은 청년니트의 일과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발제3. “돈벌이는 안돼서 쓸모 없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재미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 발제자 소개

강원 **쌀나무** 바다도 있고 산도 있는 강릉에서, 산이 잘 보이는 농촌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집에서 시내 버스 타고 환승없이 한번에 갈 수 있는 바다에서 산책하며 휴식 할 때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강릉 방문객이 많아져, 고요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사라져 조금은 아쉽습니다.

경기 **벤자민** 지명은 경기도지만 보통 수도권이라 부르는 내 고장. 버스와 지하철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고 산과 강 보다 아파트와 사람으로 가득 찬 이 곳에서 잠시 휴식중인 백수들 중 한명으로 여기 와있습니다~

- 경상 포도** 전주와 이름이 헷갈리는 도시 진주에 산다. 논과 밭, 멋진 느티나무가 있는 동네에 살면서 집 안에선 혼자 텃밭거리고 집 밖에선 사람들과 꿈지락 댄다.
- 서울 아풍** 청년 지원 제도가 잘 되어 있는 서울에 도약의 발판을 찾으러 왔다. 하지만 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져 백수 기간이 연장되었다. 설상가상 대출 연체 기록으로 청년수당도 받지 못하게 되는데..
- 전라 문어빵** 이름을 열 번쯤 말해줘도 모르는 소도시에서 왔습니다. 소도시의 백수도 과로할 수 있습니다.
- 제주 이조기** 제주바다와 올레길을 마당 삼아 살고 있다. 도서지역 택배비 부담으로 오일장, 지역마켓에서 제주산 식재료를 찾아 먹기 시작했고, 가끔 채집도 한다. 더우면 바다에 들어가고 선선하거나 노을이 멋진 날엔 산책을 나가며 자연과 함께 자연스럽게 살려고 노력 중이다. 백수생활이 아직 어색하다.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길고양이 밥주기이다.
- 충청 비누** 가끔 주변 이웃들에게 상추와 과일을 선물 받는 동네에 살고 있다. 심심할 땐 마실을 나가, 지역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발제1. “여러분, 잘 먹고 계신가요?”

지역별 청년 혹은 청년니트의 식생활 모습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배달? 직접 요리? 야식? 혼밥? 부모님? 한끼에 쓸 수 있는 비용?)

- **아풍** : 1인가구, 혼자 살고 있는데 반찬가게에서 사먹고 있음. 배달을 주로 해먹었는데 비용이 많이 나왔음. 집세보다 많이 나왔던 적도 있음. 집세가 4라고 하면 식대는 8정도 나왔는데 시행착오 후에 반찬가게에서 사먹기 시작. 단점은 플라스틱 포장에 있어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신경쓰임
- **쌀나무** : 가족들과 같이 살아서 식대가 안 들고, 국이나 반찬이 부모님이 제공해주는 걸로 해결함. 그러다 보니 삼시 세끼 메뉴가 같을 때가 많음,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사 먹고 혼자 있을 경우에는 맥도날드에 눈치 안보고 갈 수 있어서 많이 이용함. 외지에 살 때는 요리도 많이 했는데 지금 거주하는 곳은 치킨 배달도 안 되고

편의점도 없기 때문에 주는 대로 먹는 편. 서울에 있는 선후배 집에 있을 때는 야식 시켜 먹거나 그렇기도 한데, 지금은 야식을 시켜 먹는게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 몸은 건강해진 느낌인데 무료하다는 생각도 가끔 함. 집에서 농사 짓고 텃밭에서 키우는 것과 주변에 복숭아하시는 분이 계셔서 어릴 때 부터 간식으로 먹었고, 아시는 분 중에 토마토 주시는 분도 계셨고. 감자 고구마가 한 박스씩은 집집마다 있는 편임

- **비누** : 현재 가족들과 같이 지내고 있어서 식대가 거의 안 드는데, 혼자 살 때에 비해서 배달 빈도도 줄어들었고 편의점도 거의 가지 않음. 반면 직접 주방을 쓰거나 요리를 하는 경우가 없음. 이웃들을 통해 자연에서 자란 식자재를 받아서 나눠 먹기도 하고, 지역에 과수원이 많아서 사과를 싸게 팔거나 나눠 주셔서 선물로 받아서 먹곤 함
- **다원** : 지금은 서울에 혼자 있어서 조리 위주와 배달을 너무 많이 먹고 있음. 익산에 있을 때는 가족들이 직접 재배 한 걸로 이웃에 나눠주고 전라도는 타지역에 비해서도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이기 때문에 학창시절부터 각종 작물을 쉽게 접할 수 있음. 무엇보다 바로 따온 정말 신선하게 식재료를 먹을 수 있음. 배달음식은 가족들 눈치 보여서 잘 못 시켜 먹음
- **조기** : 서귀포에 생활 중인데 물가가 비싼 편. 공산품도 조금씩 더 비싸고, 채소나 작물도 종류가 적고 덜 신선한 면이 있음. 대형마트가 부족하고, 외식하기에는 관광지 물가라서 주로 집에서 해먹어야 해서 주로 5일장을 활용하는 편인데 때때로 당근마켓 동네 생활을 통해 상품 판매가 어렵지만 먹을 수 있는 채소, 과일 등을 사 먹기도 함. 또 바닷가에 가서 직접 잡아먹기도 함. 문어와 거북손을 오늘도 잡아 왔음. 생선도 비싸서 주변에 물어봤더니 직접 공수하는 걸로. 배달은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잘 안 시켜 먹게 됨
- **벤자민** : 집에서 어머니 밥을 먹고 오전 10시 정도에 나오고 커피숍에 감. 작업을 하면서 음료를 사기 때문에 4,5천원을 쓰게 됨. 음료 값을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점심은 삼각김밥을 주로 먹고 저녁은 집에 가서 먹고 있음. 맛있거나 다른 걸 먹고 싶을 때도 있는데 돈을 아끼기 위해 참음

- **포도** :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과 반찬을 먹는 편이라 따로 식비가 들지 않음. 종종 내가 먹고 싶은 메뉴가 있으면 직접 재료를 사와서 해먹는 편. 집이 쌀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쌀, 외가에서 농사 지은 작물(양배추, 부추 등 철마다 다름), 부모님 지인들이 주는 과일과 채소, 집에서 키우는 닭이 낳은 달걀, 집 텃밭에서 기른 작물들이 밥상에 올라온다. 어머니가 외식을 싫어하는 편이라 대부분 집에서 먹는 편.

주문하면 우리집까지 오는 곳 이자 동네 유일한 야식 종류는 치킨인데 야식을 즐겨먹지 않아서 잘 먹지는 않음. 종종 외출했다 들어오는 동생이 사온 치킨을 먹음. 시내 외출했을 때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즉석식품과 과자를 충동구매해서 한가득 집에 쌓아 놓고 먹음

Q 제주 어촌계 허락을 받아야한다고도 하던데?

- **이조기** : 지켜야 할 조건들만 지킨다면 괜찮음. 어촌계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어촌계 아닌 곳에서 채집하고, 금어기 등 변하는 조건들을 계속 확인함.

Q 혼자살때보다 요리를 적게 하게 되는 이유는?

- **쌀나무** : 내 주방이 아니고, 어머님 주방이다 보니 도구나 집기들이 손에 덜 잡히고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음식자재를 미리 준비 해놓지 않으면 요리하기가 쉽지 않음

Q 하루 식대에 얼마를 쓰는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 **벤자민** : 1300원인데 서울가면 물가가 비싸서 더 쓰게 됨
- **문어빵** : 월평균 30만원 정도 카페가는 비용 포함
- **비누** : 전혀 안쓰는 때도 있고, 배달하는 경우 평균2만원, 서울 가는 때는 몇 만원
- **쌀나무** : 집에 있을 때는 안쓰고, 친구와 강릉에서 사먹을때는 8, 9천원, 서울가면 많이 들고.
- **아퐁** : 일평균 만오천정도. 카페 비용 포함
- **포도** : 집에 있을 땐 0원, 집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면 2~3만원, 혼자 볼일 보고 들어오는 거면 만원이내 쓰는 편.